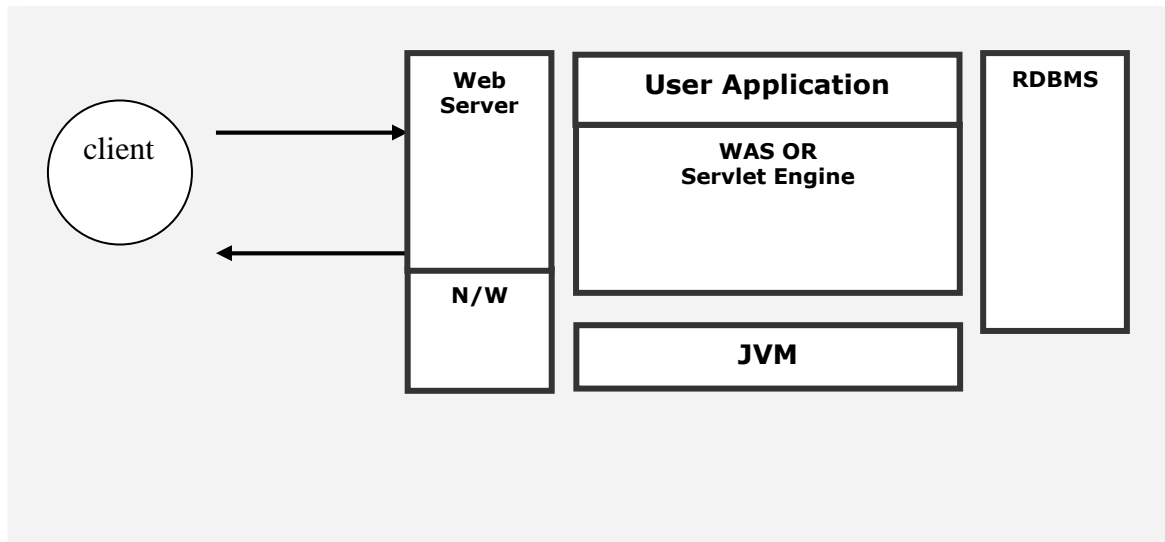


How to find bottleneck in J2EE application

작성자 : 자바스터디 네트워크 조대협(bcho@bea.com)

J2ee application 을 운영하다보면, 시스템이 극도로 느려지거나, 멈춰버리는 현상이 생기고는 한데, 분명히 개발하면서 테스트할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런일이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J2ee application 을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



< 그림 1. 일반적인 J2ee application 의 구조 >

J2ee application 의 동작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나눠보면 위와 같이 Network, User Application (이하 User AP), WAS 또는 Servlet Engine(이하 통칭해서 WAS),JVM 과 RDBMS 이렇게 크게 다섯가지 조각으로 나뉘어 진다. 물론 JCA 를 이용해서 Legacy 와 연결할 수 도 있고, RMI/CORBA 를 이용하여 다른 Architecture 를 구현할 수 는 있으나, 이 강좌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을 설명하고자 하는것임으로 범위에서는 제외하겠다.

1. Hang up 과 slow down 현상의 정의...

먼저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자..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멈추는 현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용어를 정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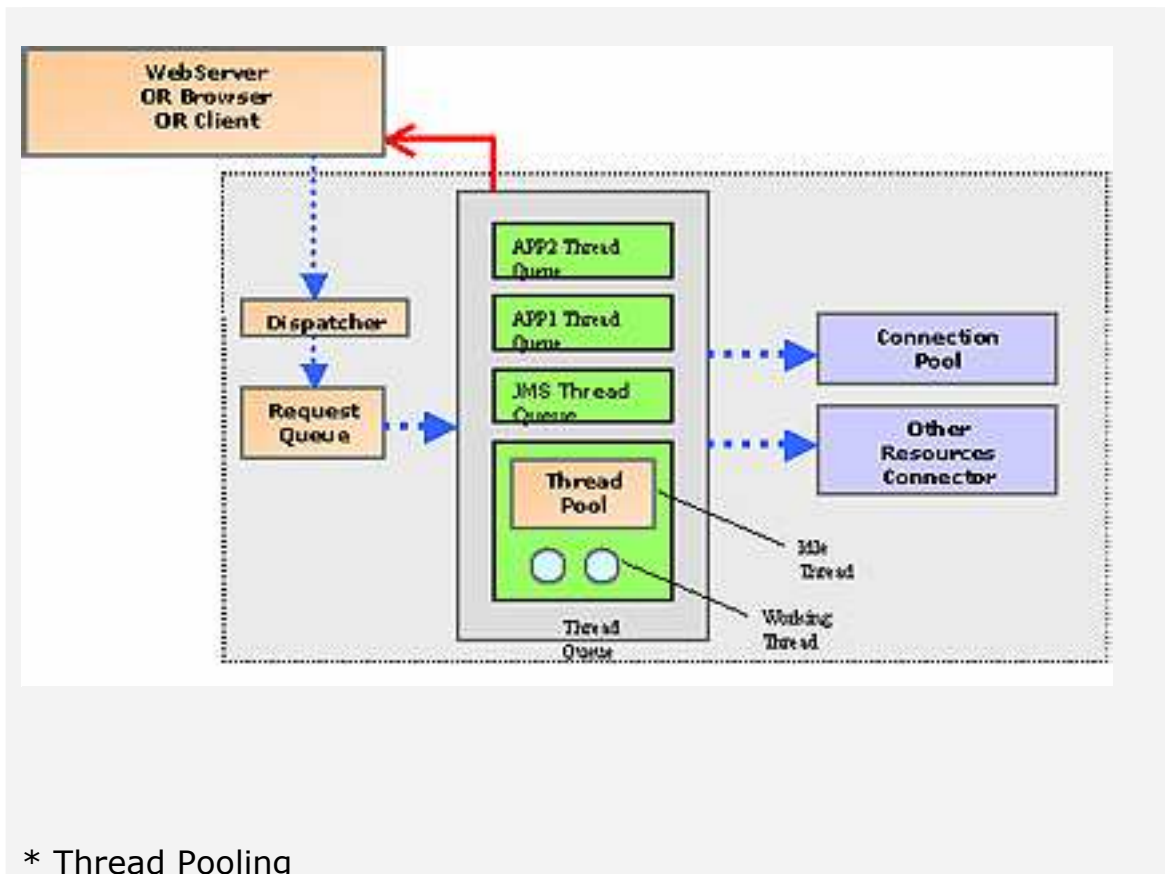
- Hang up : Server Instance 는 실행되고 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 (멈춤 상태)
- Slowdown : Server Instance 의 response time 이 아주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 (느려짐)

이 Hangup 과 slowdown 현상은, 대부분이 그림 1 에서 설명한 다섯가지 요소중 하나 이상의 병목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즉, 이 병목 구간을 발견하고, 그 구간을 제거하면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것이다.

2. Slow down analysis in WAS & User AP

1. WAS 의 기본 구조

이 병목 구간을 발견하는 방법에 앞서서, 먼저 WAS 시스템의 기본적인 내부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Thread Pooling

< 그림 2. WAS 시스템의 구조 >

<그림 2>는 일반적인 WAS 의 구조이다.

WAS 는 Client 로 부터 request 를 받아서, 그 Request 의 내용을 분석한다
JMS 인지, HTTP , RMI request 인지를 분석한후 (Dispatcher) 그 내용을
Queue 에 저장한다.

Queue 에 저장된 내용은 WAS 에서 Request 를 처리할 수 있는 Working
Thread 들이 있을때 각각의 Thread 들이 Queue 에서 Request 를 하나씩
꺼내서 각각의 Thread 들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하는것은 Thread pooling 이라는 것인데.
Thread 를 미리 만들어놓고, Pool 에 저장한채로 필요할때 그 Thread 를
꺼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Connection Pooling 과 같은 원리이다.)

WAS 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성격마다 이 Thread Pool 을 나누어서
만들어놓고 사용을 한다. 즉 예를 들어서 금융 시스템의 예금 시스템과 보험
시스템이 하나의 WAS 에서 동작할때, 각각의 업무를 Thread Pool 을
나누어서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업무의 부하에 따라서 각
Thread Pool 의 Thread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만약에 Thread 가
모자르거나 deadlock 등의 장애사항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Thread
Pool 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2. Thread Dump 를 통한 WAS 의 병목 구간 분석

위에서 살펴봤듯이, WAS 는 기본적으로 Thread 기반으로 작동하는
Application 이다. 우리가 hang up 이나 slow down 은 대부분의 경우가
WAS 에서 현상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WAS 에 원인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라도 WAS 의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먼저 이 WAS 가 내부적으로 어떤 Application 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면
병목 구간에 한층 쉽게 접근할 수 가 있다.

1) What is thread dump?

이를 위해서 JVM 에서는 Java Thread Dump 라는 것을 제공한다.
Thread Dump 란 Java Application 이 작동하는 순간의 X-Ray 사진,
snapshot 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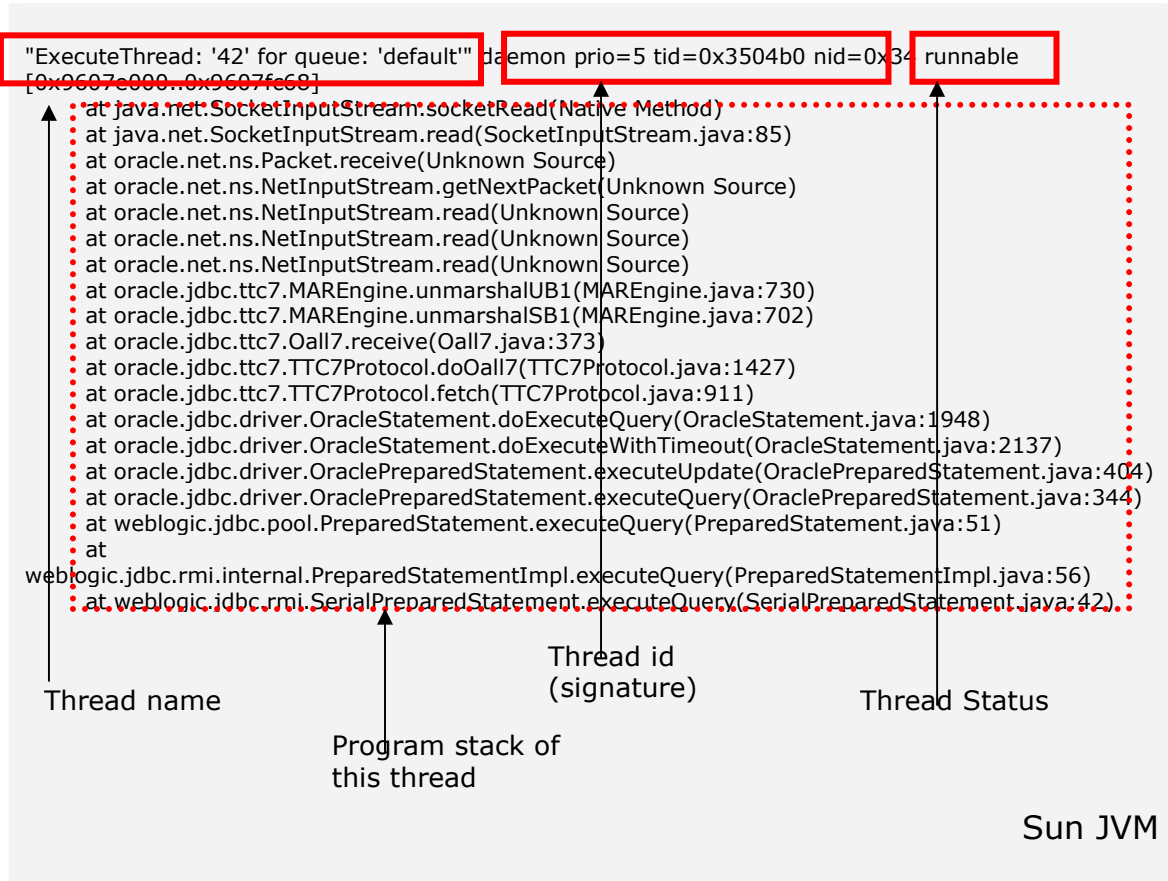
즉 이 Thread dump 를 연속해서 수번을 추출한다면, 그 당시에
Application 이 어떻게 동작하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Thread dump 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 Unix 에서는 kill -3 pid
- Windows 계열에서는 Ctrl + break

를 누르면 stdout 으로 thread dump 가 추출 된다.

Thread dump 는 Application 을 구성하고 있는 현재 구동중인 모든 Thread 들의 각각의 상태를 출력해준다.



<그림 3-2. Thread dump >

그림 3-2 는 전체 Thread dump 중에서 하나의 Thread 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Thread Dump 에서 각각의 Thread 는 Thread 의 이름과, Thread 의 ID, 그리고 Thread 의 상태와, 현재 이 Thread 가 실행하고 있는 Program 의 스택을 보여준다.

- Thread name
각 쓰레드의 이름을 나타낸다.
※ WAS 나 Servlet Engine 에 따라서는 이 이름에 Thread Queue 이름등을 배정하는 경우가 있다.
- Thread ID
쓰레드의 System ID 를 나타낸다. 이 강좌 나중에 이 ID 를 이용해서 각 Thread 별 CPU 사용률을 추적할 수 있다.
- Thread Status

매우 중요한 값중의 하나로 각 Thread 의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Thread 가 사용되고 있지 않을때는 wait 를 , 그리고
 사용중일때는 runnable 을 나타내는게 일반적이다.
 그외에, IO Wait 나 synchronized 등에 걸려 있을때 Wait for monitor
 entry, MW (OS 별 JVM 별로 틀림) 등의 상태로 나타난다.

- Program stack of thread

현재 해당 Thread 가 어느 Class 의 어느 Method 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 정보를 통해서 현재 WAS 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2) How to analysis thread dump

앞에서 Thread dump 가 무엇이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러면 이 Thread dump 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System 의
 Bottle neck 을 찾아내는데 이용할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System 이 Hangup 이나 slowdown 에 걸렸을때, 먼저 Thread dump 를
 추출해야 한다. 이때 한개가 아니라 3~5 초 간격으로 5 개 정도의 dump 를
 추출한다. 추출한 여러개의 dump 를 연결하면 각 Thread 가 시간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먼저 각각의 Thread 덤프를 비교해서 보면, 각각의 Thread 는 적어도
 1~2 개의 덤프내에서 연속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는게 정상이다.
 일반적으로 Application 은 내부적으로 매우 고속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하나의 Method 에 1 초이상 머물러 있다는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Thread Dump 의 분석은 각각의 Thread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는 Thread 를 찾는데서 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 아래 <그림 3-3>의 프로그램을 보면
 MY_THREAD_RUN()이라는 메소드에서 부터
 MethodA()→MethodB()→MethodC() 를 차례로 호출하는 형태이다.

```

MYTHREAD_RUN(){ ←·
    call methodA();
}

methodA(){
    //doSomething(); ←·
    call methodB();
}

methodB(){
    //call methodC(); ←◆
}

methodC(){
    // doSomething ←◇
    for(;;){// infinite loop } ←◇
}
    
```

<그림 3-3. sample code >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중에 처음부터 Thread Dump 를 추출 하면 대강 다음과 같은 형태일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함수 호출에 따라서 Stack 이 출력되다가 ◇의 단계 즉 MethodC 에서 무한루프에 빠지게 되면 더이상 프로그램이 진행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덤프를 유지하게 된다.

```

"MYTHREAD" runnable ← ·
at ...MYTHREAD_RUN()
:

"MYTHREAD" runnable ←·
at ...methodA()
at ...MYTHREAD_RUN()
:

"MYTHREAD" runnable ←◆
at ...methodB()
at ...methodA()
at ...MYTHREAD_RUN()
:

"MYTHREAD" runnable ←◇
at ...methodC()
at ...methodB()
at ...methodA()
at ...MYTHREAD_RUN()
:

"MYTHREAD" runnable ← 이 덤프 모양이 반복됨
at ...methodC()
at ...methodB()
at ...methodA()
at ...MYTHREAD_RUN()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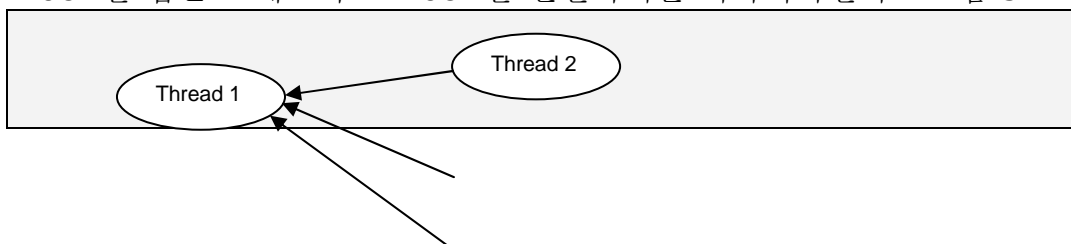
우리는 이 덤프만을 보고 methodC 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고, methodC 의 소스코드를 분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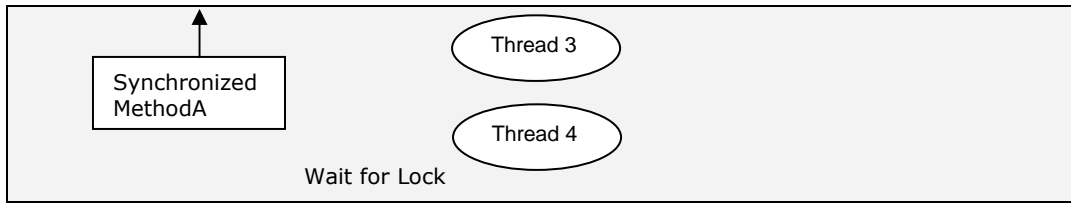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제부터 Slow down 과 Hang up 현상을 유발하는 일반적인 유형과 그 Thread Dump 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CASE 1. lock contention**

잘 알다싶이 Java 는 Multi Threading 을 지원한다. 이 경우 공유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Synchronized method 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Locking 이 이것이다.

예를 들어 Thread1 이 Synchronized 된 Method A 의 Lock 을 잡고 있는 경우, 다른 쓰레드들은 그 Method 를 수행하기 위해서, 앞에서 Lock 을 잡은 쓰레드가 그 Lock 을 반환하기를 기다려야한다. 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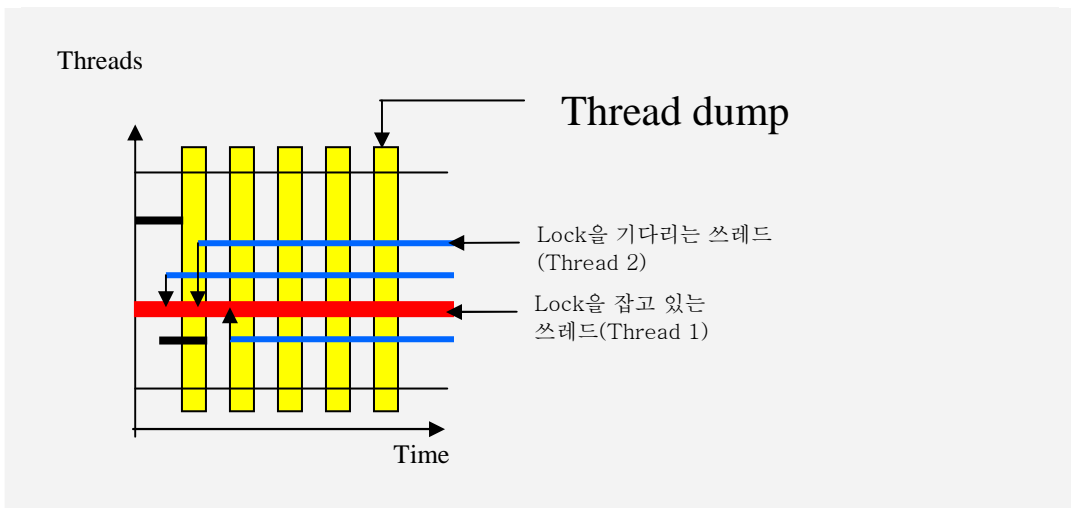




<그림 3-4. Thread 간에 Lock 을 기다리는 형태 >

만약에 이 Thread 1 의 MethodA 의 수행시간이 아주 길다면 Thread 2,3,4 는 마냥 이 수행을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야하고, 다음 2 번이 Lock 을 잡는다고 해도 3,4 번 Thread 들은 1 번과 2 번 쓰레드가 끝난 시간 만큼의 시간을 누적해서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수행시간이 매우 느려지는 현상을 겪게 된다.

이처럼 여러개의 Thread 가 하나의 Lock 을 동시에 획득하려고 하는 상황을 Lock Contention 이라고 한다.



<그림 3-5. Lock Contention 상황에서 Thread 의 시간에 따른 진행 상태 >

이런 상황에서 Thread Dump 를 추출해보면 <그림 3-6> 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

```

"ExecuteThread: '12' for queue: 'weblogic.kernel.Default'" daemon prio=10 tid=0x0055ae20
nid=23 lwp_id=3722788 waiting for monitor entry [0x2fb6e000..0x2fb6d530]
  at sun.misc.Launcher$AppClassLoader.loadClass(Launcher.java:258)
  - waiting to lock <0x38819a18> (a sun.misc.Launcher$AppClassLoader)
  at java.lang.ClassLoader.loadClass(ClassLoader.java:292)
  - locked <0x38db9ea8> (a weblogic.utils.classloaders.GenericClassLoader)
  at java.lang.ClassLoader.loadClass(ClassLoader.java:292)
  - locked <0x38f520f8> (a weblogic.utils.classloaders.GenericClassLoader)
  at java.lang.ClassLoader.loadClass(ClassLoader.java:292)
  - locked <0x3941af18> (a weblogic.utils.classloaders.GenericClassLoader)
  at java.lang.ClassLoader.loadClass(ClassLoader.java:292)
  - locked <0x3941b6b0> (a weblogic.utils.classloaders.ChangeAwareClassLoader)
  
```

```

at java.lang.ClassLoader.loadClass(ClassLoader.java:255)
:
at org.apache.xerces.jaxp.SAXParserFactoryImpl.newSAXParser(Unknown Source)
at org.apache.axis.utils.XMLUtils.getSAXParser(XMLUtils.java:252)
- locked <0x329cf50> (a java.lang.Class)

"ExecuteThread: '13' for queue: 'weblogic.kernel.Default'" daemon prio=10 tid=0x0055bde0
nid=24 lwp_id=3722789 waiting for monitor entry [0x2faec000..0x2faec530]
at org.apache.axis.utils.XMLUtils.getSAXParser(XMLUtils.java:247)
- waiting to lock <0x329cf50> (a java.lang.Class)
at
org.apache.axis.encoding.DeserializationContextImpl.parse(DeserializationContextImpl.java:239)
"ExecuteThread: '14' for queue: 'weblogic.kernel.Default'" daemon prio=10 tid=0x0061d680
nid=25 lwp_id=3722790 waiting for monitor entry [0x2fa6b000..0x2fa6b530]
at org.apache.axis.utils.XMLUtils.releaseSAXParser(XMLUtils.java:283)
- waiting to lock <0x329cf50> (a java.lang.Class)
at
org.apache.axis.encoding.DeserializationContextImpl.parse(DeserializationContextImpl.java:254)
"ExecuteThread: '15' for queue: 'weblogic.kernel.Default'" daemon prio=10 tid=0x0061dc20
nid=26 lwp_id=3722791 waiting for monitor entry [0x2f9ea000..0x2f9ea530]
at org.apache.axis.utils.XMLUtils.releaseSAXParser(XMLUtils.java:283)
- waiting to lock <0x329cf50> (a java.lang.Class)
at

```

<그림 3-6. Lock Contention 에서 Lock 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의 Thread Dump>

그림 3-6 의 덤프를 보면 12 번 Thread 가 org.apache.axis.utils.XMLUtils.getSAXParser 에서 Lock 을 잡고 있는것을 볼 수 있고, 36,15,14 번 쓰레드들이 이 Lock 을 기다리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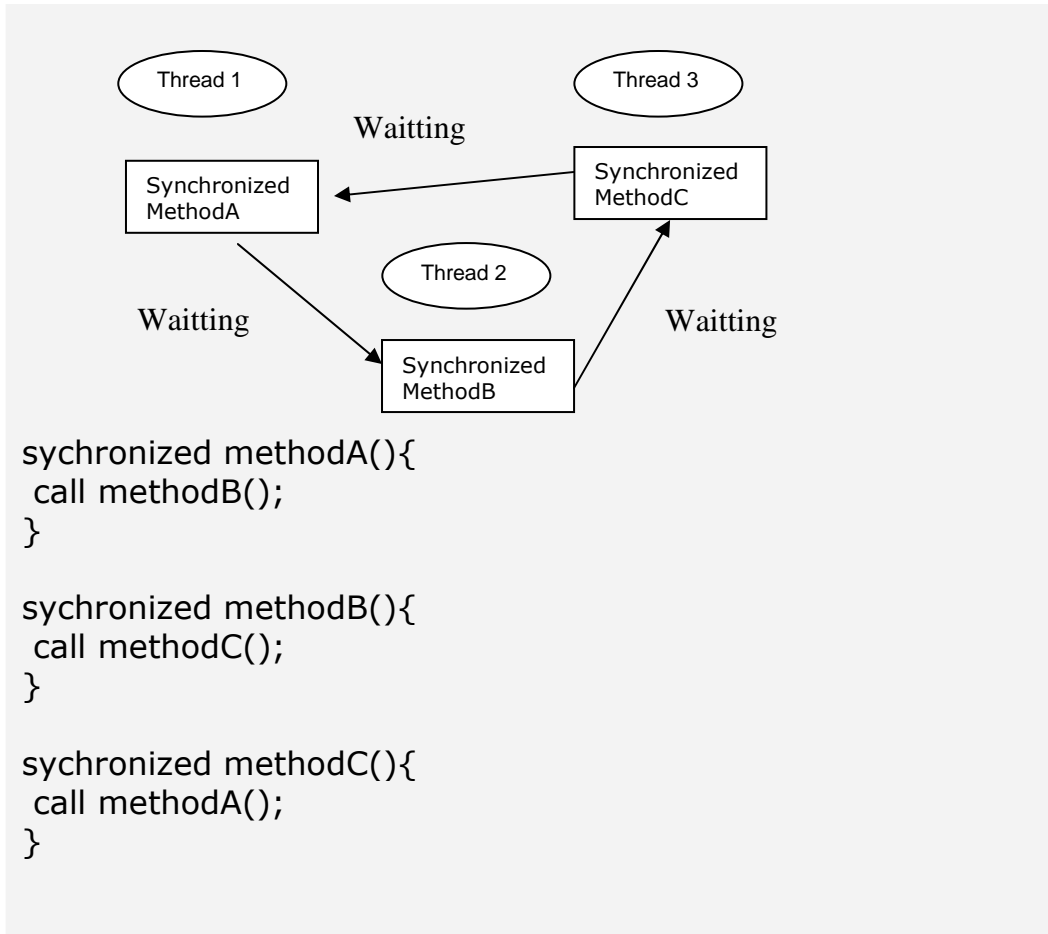
이런 Lock Contention 상황은 Multi Threading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Synchronized Method 의 실행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거나, 불필요한 Synchronized 문을 사용했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Synchronized Method 의 사용을 자제하고, Synchronized block 안에서의 최적화된 Algorithm 을 사용하는것이 필요하다.

- CASE 2. dead 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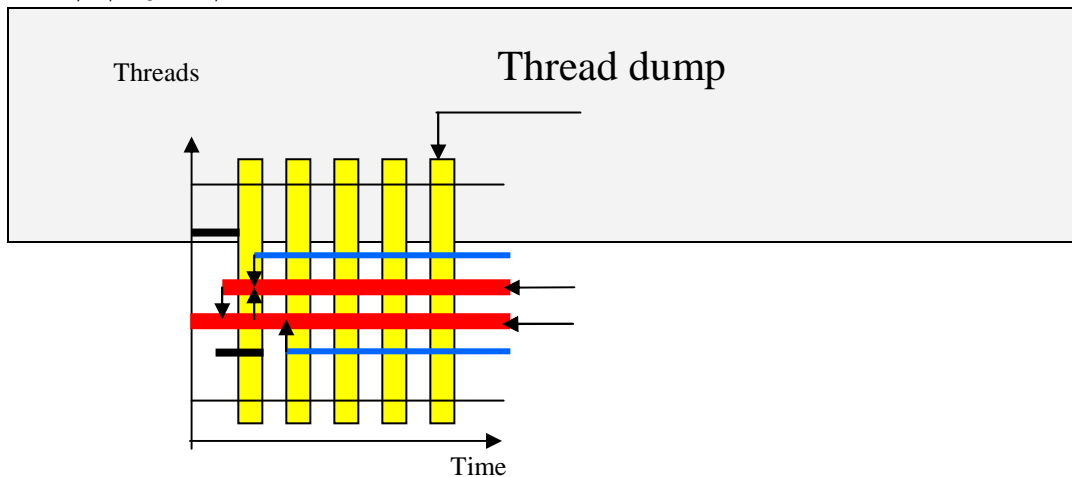
이 Locking 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dead Lock 현상이다. 두개 이상의 쓰레드가 서로 Lock 을 잡고 기다리는 "환형대기조건" 이 성립되었을때, 서로 Lock 이 풀리지 않고 무한정 대기하는 현상을 이야기 한다.

그림 3-7 을 보면 Thread1 은 MethodA 를 수행하고 있는데, synchronized methodB 를 호출하기전에 Thread2 가 methodB 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Therad2 는 Thread3 가 수행하고 있는 methodC 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methodC 에서는 Thread1 에서 수행하고 있는 methodA 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즉 각각의 메소드들이 서로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형 대기조건" 이기 때문에 이 Application 의 3 개의 쓰레드들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 않게 된다.



< 그림 3-7. 환형 대기조건에 의한 deadlock >

이러한 "환형대기조건"에 의한 deadlock 은 Thread Dump 를 추출해보면 <그림 3-8> 과 같은 패턴을 띄우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다.



서로 Lock을 잡고 있음

<그림 3-8. Deadlock 이 걸렸을때 시간 진행에 따른 Thread 의 상태>

```
"ExecuteThread-6" (TID:0x30098180, sys_thread_t:0x39658e50, state:MW, native
ID:0xf10) prio=5
at oracle.jdbc.driver.OracleStatement.close(OracleStatement.java(Compiled
Code))
at
weblogic.jdbc.common.internal.ConnectionEnv.cleanup(ConnectionEnv.java(Compiled
Code))
at
weblogic.jdbc.common.internal.ConnectionPool.release(ConnectionPool.java(Compiled
Code))
at weblogic.jdbcbase.pool.Connection.close(Connection.java(Compiled Code))
at sis.ao.svao0400R.svao0400RQ.mainProcess(svao0400RQ.java(Compiled Code))
at sis.ao.svao0400R.svao0400RQ.doGet(svao0400RQ.java(Compiled Code))
at javax.servlet.http.HttpServlet.service(HttpServlet.java(Compiled Code))
at javax.servlet.http.HttpServlet.service(HttpServlet.java(Compiled Code))
at
weblogic.servlet.internal.ServletStubImpl.invokeServlet(ServletStubImpl.java(Compiled
Code))
:
"ExecuteThread-8" (TID:0x30098090, sys_thread_t:0x396eb890, state:MW, native
ID:0x1112) prio=5
at oracle.jdbc.driver.OracleConnection.commit(OracleConnection.java(Compiled
Code))
at weblogic.jdbcbase.pool.Connection.commit(Connection.java(Compiled Code))
at sis.as.svas0900E.svas0902ES.mainProcess(svas0902ES.java(Compiled Code))
at sis.as.svas0900E.svas0902ES.doGet(svas0902ES.java(Compiled Code))
at javax.servlet.http.HttpServlet.service(HttpServlet.java(Compiled Code))
at javax.servlet.http.HttpServlet.service(HttpServlet.java(Compiled Code))
at
weblogic.servlet.internal.ServletStubImpl.invokeServlet(ServletStubImpl.java(Compiled
Code))
: (중략)
sys_mon_t:0x39d75b38 infl_mon_t: 0x39d6e288:
oracle.jdbc.driver.OracleConnection@310BC380/310BC388: owner
"ExecuteThread-8" (0x396eb890) 1 entry ← 1)
    Waiting to enter:
        "ExecuteThread-10" (0x3977e2d0)
        "ExecuteThread-6" (0x39658e50)
sys_mon_t:0x39d75bb8 infl_mon_t: 0x39d6e2a8: \
oracle.jdbc.driver.OracleStatement@33AA1BD0/33AA1BD8: owner
"ExecuteThread-6" (0x39658e50) 1 entry ← 2)
    Waiting to enter:
        "ExecuteThread-8" (0x396eb890)
```

※ IBM AIX 4.3.3 JVM 1.3.0

IBM AIX의 JVM의 경우에는 Lock의 정보가 각 Thread의 Stack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Thread별 Locking 정보를 따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Lock 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한다.

<그림 3-9. Deadlock이 걸린 IBM AIX Thread Dump >

DeadLock의 검출은 Locking Condition을 비교함으로써 검출할 수 있으며, 최신 JVM (Sun 1.4 이상등)에서는 Thread Dump 추출시 만약 Deadlock이 있다면 해당 Deadlock을 찾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3-9를 보자. IBM AIX의 Thread 덤프이다. 1)항목을 보면 현재 8번 쓰레드가 잡고 있는 Lock은 10번과 6번 쓰레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Lock은 OracleConnection에 의해서 잡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
sys_mon_t:0x39d75b38 infl_mon_t: 0x39d6e288:  
oracle.jdbc.driver.OracleConnection@310BC380/310BC388: owner  
"ExecuteThread-8" (0x396eb890) 1 entry ← 1)  
  Waiting to enter:  
    "ExecuteThread-10" (0x3977e2d0)  
    "ExecuteThread-6" (0x39658e50)
```

그림 3-9의 2)번 항목을 보면 이 6번 쓰레드는 OracleStatement에서 Lock을 잡고 있는데, 이 Lock을 8번 쓰레드가 기다리고 있다. (아래)

```
sys_mon_t:0x39d75bb8 infl_mon_t: 0x39d6e2a8: \  
oracle.jdbc.driver.OracleStatement@33AA1BD0/33AA1BD8: owner  
"ExecuteThread-6" (0x39658e50) 1 entry ← 2)  
  Waiting to enter:  
    "ExecuteThread-8" (0x396eb890)
```

결과적으로 6번과 8번은 서로 Lock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 Lock이 풀리지 않는 Dead Lock 상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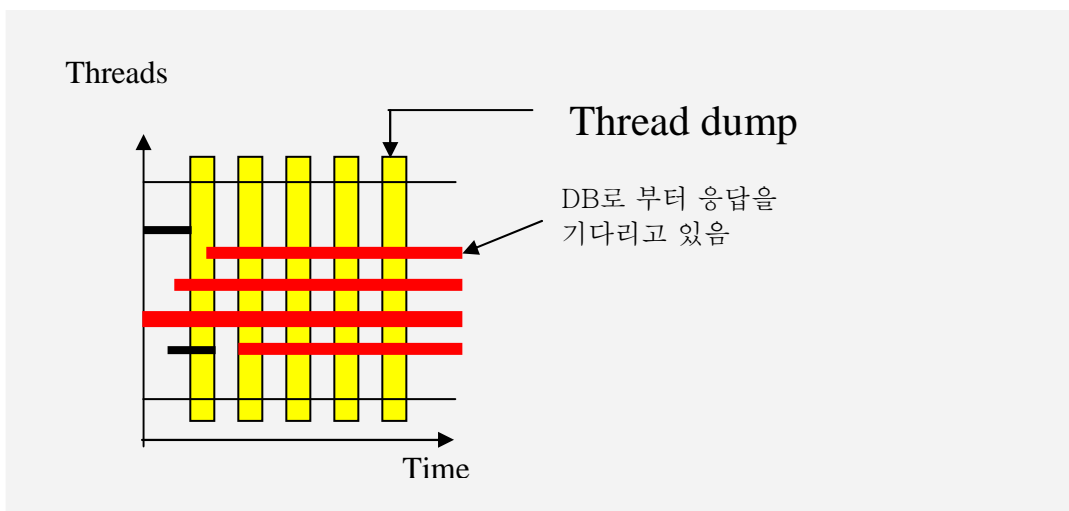
해결 방안

Dead Lock의 해결 방안은 서로 Lock을 보고 있는것을 다른 Locking Object를 사용하거나 Lock의 방향 (Synchronized call의 방향)을 바꿔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User Application 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synchronized method** 의 호출 순서를 "환형대기조건"이 생기지 않도록 바꾸도록 하고.
 위와 같이 Vendor 들에서 제공되는 코드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Vendor 에 패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해결한다.

- CASE 3. wait for IO response

다음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은 각각의 Thread 들이 IO Response 를 기다리는데... IO 작업에서 response 가 느리게 와서 시스템 처리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다.



<그림 3-10. Thread 들이 IO Wait 를 할때 시간에 따른 Thread Dump 상황 >

```
"ExecuteThread: '42' for queue: 'default'" daemon prio=5 tid=0x3504b0 nid=0x34 runnable [0x9607e000..0x9607fc68]
  at java.net.SocketInputStream.socketRead(Native Method)
  at java.net.SocketInputStream.read(SocketInputStream.java:85)
  at oracle.net.ns.Packet.receive(Unknown Source)
  at oracle.net.ns.NetInputStream.getNextPacket(Unknown Source)
  at oracle.net.ns.NetInputStream.read(Unknown Source)
  at oracle.net.ns.NetInputStream.read(Unknown Source)
  at oracle.net.ns.NetInputStream.read(Unknown Source)
  at oracle.jdbc.ttc7.MAREngine.unmarshalUB1(MAREngine.java:730)
  at oracle.jdbc.ttc7.MAREngine.unmarshalSB1(MAREngine.java:702)
  at oracle.jdbc.ttc7.Oall7.receive(Oall7.java:373)
  at oracle.jdbc.ttc7.TTC7Protocol.doOall7(TTC7Protocol.java:1427)
  at oracle.jdbc.ttc7.TTC7Protocol.fetch(TTC7Protocol.java:911)
  at oracle.jdbc.driver.OracleStatement.doExecuteQuery(OracleStatement.java:1948)
  at oracle.jdbc.driver.OracleStatement.doExecuteWithTimeout(OracleStatement.java:2137)
  at oracle.jdbc.driver.OraclePreparedStatement.executeUpdate(OraclePreparedStatement.java:404)
  at oracle.jdbc.driver.OraclePreparedStatement.executeQuery(OraclePreparedStatement.java:344)
  at weblogic.jdbc.pool.PreparedStatement.executeQuery(PreparedStatement.java:51)
  at weblogic.jdbc.rmi.internal.PreparedStatementImpl.executeQuery(PreparedStatementImpl.java:56)
  at weblogic.jdbc.rmi.SerialPreparedStatement.executeQuery(SerialPreparedStatement.java:42)
  at com.XXXX 생략
  at .....
```

<그림 3-11. Thread 가 DB Query Wait 에 걸려 있는 stack >

그림 3-10 상황은 DB 에 Query 를 보내고 response 를 Thread 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AP 에서 JDBC 를 통해서 Query 를 보냈는데, Response 가 오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게 있게 되고, 다른 Thread 가 같은 DB 로 보냈는데. Response 가 오지 않고, 이런것들이 중복되서 결국은 사용할 수 없는 Thread 가 없게 되서 새로운 request 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기존에 Query 를 보낸 내용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림 3-11>은 각각의 Thread 의 stack dump 인데, 그 내용을 보면 ExecuteQuery 를 수행한후에, Oracle 로 부터 데이터를 read 하기 위해 대기 하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주로 DB 사용시 대용량 Query(시간이 많이 걸리는)를 보냈거나, DB 에 lock 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외에도 Socket 이나 File 을 사용하는 AP 의 경우 IO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 방안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Thread Dump 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견한후에, 해당 소스코드나 시스템등에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 CASE 4. high CPU usage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거의 멈추었을때, 우리가 초기에 해볼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 하면, 현재 시스템의 CPU 사용률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시스템의 CPU 사용률이 높은 경우, 문제가 되는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CPU 를 많이 사용하는 모듈을 찾아내는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top 이나 glance(HP UX)를 통해서 CPU 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Process 를 판독한다. 만약 WAS 이외의 다른 process 가 CPU 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 Process 의 CPU 과사용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CPU 사용률이외에도, Disk IO 양이 많지는 않은지.. WAS 의 JVM Process 가 Swap out (DISK 로 SWAP 되는 현상) 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JVM Process 가 Swapping 이 되면 실행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기 때문에, JVM Process 는 Swap out 되어버리면 안된다.

일단 CPU 를 과 사용하는 원인이 WAS Process 임을 발견했으면 프로그램상에 어떤 Logic 이 CPU 를 과점유하는지를 찾아내야한다.

방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WAS Process 의 Thread 별 CPU 사용률을 체크한다. ← 1)

Thread Dump 를 추출한다. ←2)

1)과, 2)에서 추출한 정보를 Mapping 하여, 2)의 Thread Dump 상에서 CPU 를 과점유하는 Thread 를 찾아내어 해당 Thread 의 Stack 을 분석하여 CPU 과점유하는 원인을 찾아낸다.

대부분 이런 요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원인이 많다.

- 과도한 String 연산으로 인해서 CPU 사용률이 높아지는 경우 잘 알고 있다시피 String 연산은 CPU 를 아주 많이 사용한다. String 과 Loop 문(for,while 등)의 사용은 CPU 부하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String Buffer 를 사용하도록 하자.
- 과도한 RMI Cal
RMI 호출은 Java Object 를 Serialize 하고 Deserialize 하는 과정을 수반하는데, 이는 CPU 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특별히 RMI 를 따로 코딩하지 않더라도 EJB 를 호출하는것이 Remote Call 일때는 기본적으로 RMI 호출을 사용하게 되고, 부하량이 많을때 이 부분이 주로 병목의 원인이 되곤한다. 특히 JSP/Servlet→EJB 호출되는것이 같은 System 의 같은 JVM Process 안이라도 WAS 별로 별도의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RMI Call 을 이용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WebLogic 에서 Call By Reference 를 위한 호출 방법 정의

참고로 WebLogic 의 경우에는 Servlet/JSP→EJB 를 호출하는 방식을 Local Call 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ear 파일내에 패키징해야하고, EJB 의 weblogic-ejb-jar.xml 에 enable-call-by-reference 를 true 로 설정해줘야한다. (8.1 이상)

자세한 내용은

<http://www.j2eestudy.co.kr/lecture/>

[lecture_read.jsp?table=j2ee&db=lecture0201_1&id=1&searchBy=subject&searchKey=deploy&block=0&page=0](http://www.j2eestudy.co.kr/lecture_read.jsp?table=j2ee&db=lecture0201_1&id=1&searchBy=subject&searchKey=deploy&block=0&page=0) 를 참고하시 바란다.

- JNDI lookup

JNDI lookup 은 Server 의 JNDI 에 Binding 된 Object 를 읽어오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위에서 설명한 RMI call 로 수행이되는데. 특히 EJB 를 호출하기 위해서 Home 과 Remote Interface 를 lookup 하는 과정에서 종종 CPU 를 과점유하는 형태를 관찰 할 수 있다.

그래서 JNDI lookup 의 경우에는 EJB Home Interface 를 Caller Side(JSP/Servlet 또는 poor Java client)등에서 Caching 해놓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이 경우에는 EJB 의 redeploy 기능을 제약받을 수 있다.

다음은 각 OS 별로 CPU 사용률이 높은 Thread 를 검출해내는 방법이다.

○ Solaris 에서 CPU 사용률이 높은 Thread 를 검출하는 방법

1. prstat 명령을 이용해서 java process 의 LWP(Light Weight process) CPU 사용률을 구한다.

```
% prstat -L -p [WeblogicPID] 1 1
```

PID	USERNAME	SIZE	RSS	STATE	PRI	NICE	TIME	CPU	PROCESS/LWPID
26148	bwcho	143M	58M	sleep	58	0	0:00.00	0.0%	java/11
26148	bwcho	143M	58M	sleep	58	0	0:00.00	0.0%	java/10
26148	bwcho	143M	58M	sleep	58	0	0:00.00	0.0%	java/9
26148	bwcho	143M	58M	sleep	58	0	0:00.00	0.0%	java/8
26148	bwcho	143M	58M	sleep	58	0	0:00.00	0.0%	java/7
26148	bwcho	143M	58M	sleep	59	0	0:00.00	0.0%	java/6
26148	bwcho	143M	58M	sleep	59	0	0:00.00	0.0%	java/5
26148	bwcho	143M	58M	sleep	59	0	0:00.00	0.0%	java/4
26148	bwcho	143M	58M	sleep	58	0	0:00.08	0.0%	java/3
26148	bwcho	143M	58M	sleep	58	0	0:00.00	0.0%	java/2
26148	bwcho	143M	58M	sleep	58	0	0:00.14	0.0%	java/1

2. pstack 명령어를 이용해서 native thread 와 LWP 간의 id mapping 을 알아낸다.
(※ 전에 먼저 java process 가 lwp 로 돌아야되는데, startWebLogic.sh 에 LD_LIBRARY_PATH 에 /usr/lib/lwp 가 포함되어야 한다.)

```
% pstack [WebLogicPID]
```

```
----- lwp# 8 / thread# 24 -----  
ff29b3dc lwp_sema_wait (f2481e30)  
ff359818 _park (f2481e30, ff37e000, 0, f2481d78, 25020, f1c81d78) + 114  
ff3594f0 _swtch (f2481d78, 0, ff37e000, 5, 1000, e) + 424  
ff358004 cond_wait (4356, 36dfb0, ff37e000, 36dfc8, f2481d78, 0) + e4  
fe514f44 __1cNObjectMonitorEwait6MxlpnGThread__v_ (fe76fb0c, 36dfc8,  
36dfb0, fe
```

3. 1 에서 얻은 LWP ID 를 pstack log 를 통해서 분석해보면 어느 Thread 에 mapping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LWP 8 이 Thread 24 과 mapping 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kill -3 [WebLogicPID]를 해서 ThreadDump 를 얻어낸다.

```
"ExecuteThread: '11' for queue: 'default'" daemon prio=5 tid=0x36d630 nid=0x18
w
aiting on monitor [0xf2481000..0xf24819e0]
  at java.lang.Object.wait(Native Method)
  at java.lang.Object.wait(Object.java:415)
  at weblogic.kernel.ExecuteThread.waitForRequest(ExecuteThread.java:114)
  at weblogic.kernel.ExecuteThread.run(ExecuteThread.java:138)
:
```

Thread dump 에서 nid 라는 것이 있는데, 2 에서 얻어낸 thread id 를 16 진수로 바꾸면 이값이 nid 값과 같다. 즉 2 에서 얻어낸 thread 24 는 16 진수로 0x18 이기 때문에, thread dump 에서 nid 가 0x18 인 쓰레드를 찾아서 어떤 작업을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면 된다.

○ AIX Unix 에서 CPU 사용률이 높은 Thread 검출해 내기

1. ps 명령을 이용하여, WebLogic Process 의 각 시스템 thread 의사용률을 구한다.

% ps -mp [WeblogicPID] -0 THREAD

USER	PID	PPID	TID	ST	CP	PRI	SC	WCHAN	F	TT	BND	COMMAND
usera	250076	217266	-	A	38	60	72	*	242011	pts/0	-	/wwsl/sharedInstalls/aix/jdk130/...
-	-	-	315593	Z	0	97	1	-	c00007	-	--	
-	-	-	344305	S	0	60	1	f1000089c020e200	400400	-	--	
-	-	-	499769	S	0	60	1	f1000089c0213a00	400400	-	--	
-	-	-	540699	S	0	60	1	f100008790008440	8410400	-	--	
-	-	-	544789	S	0	60	1	f100008790008540	8410400	-	--	
-	-	-	548883	S	0	60	1	f100008790008640	8410400	-	--	
-	-	-	552979	S	0	60	1	f100008790008740	8410400	-	--	
-	-	-	565283	Z	0	60	1	-	c00007	-	--	
-	-	-	585783	S	0	60	1	f100008790008f40	8410400	-	--	
-	-	-	589865	Z	0	80	1	-	c00007	-	--	
-	-	-	593959	S	1	60	1	f100008790009140	8410400	-	--	
-	-	-	610365	S	0	60	1	f100008790009540	8410400	-	--	
-	-	-	614453	S	0	60	1	f100008790009640	8410400	-	--	
-	-	-	618547	S	0	60	1	f100008790009740	8410400	-	--	
-	-	-	622645	S	0	60	1	f100008790009840	8410400	-	--	
-	-	-	626743	S	0	60	1	f100008790009940	8410400	-	--	
-	-	-	630841	S	0	60	1	f100008790009a40	8410400	-	--	
-	-	-	634941	S	0	60	1	f100008790009b40	8410400	-	--	
-	-	-	639037	S	0	60	1	f100008790009c40	8410400	-	--	


```

- - - 643135 S 0 60 1 f100008790009d40 8410400 - - -
- - - 647233 S 0 60 1 f100008790009e40 8410400 - - -
- - - 651331 S 0 60 1 f100008790009f40 8410400 - - -
- - - 655429 S 0 60 1 f10000879000a040 8410400 - - -
- - - 659527 S 0 60 1 f10000879000a140 8410400 - - -
- - - 663625 S 0 60 1 f10000879000a240 8410400 - - -
- - - 667723 S 37 78 1 f1000089c020f150 400400 - - -
- - - 671821 S 0 60 1 f10000879000a440 8410400 - - -

```

여기서 CP 가 가장 높은 부분을 찾는다. 이 시스템 쓰레드가 CPU 를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시스템 쓰레드이다. (여기서는 66723 이다.)

2. dbx 명령을 이용해서 1.에서 찾은 시스템 쓰레드의 Java Thread ID 를 얻어온다.

1) % dbx -a [WebLogicPID]

2) dbx 에서 “thread” 명령을 치면 Thread ID 를 Listing 할 수 있다.

```

thread state-k wchan state-u k-tid mode held scope function
.....
$t15 wait 0xf10000879000a140 blocked 659527 k no sys _event_sleep
$t16 wait 0xf10000879000a240 blocked 663625 k no sys _event_sleep
$t17 run running 667723 k no sys JVM_Send
$t18 wait 0xf10000879000a440 blocked 671821 k no sys _event_sleep
$t19 wait running 675919 k no sys poll
$t20 wait 0xf10000879000a640 blocked 680017 k no sys _event_sleep

```

k-tid 항목에서 1 에서 찾은 Thread ID 를 찾고, 그 k-tid 에 해당하는 thread id 를 찾는다. (여기서는 \$t17 이 된다.)

3) dbx 에서 \$t17 번 쓰레드의 Java Thread ID 를 얻는다.

dbx 에서 “th info 17” 이라고 치면 \$t17 번 쓰레드의 정보를 얻어온다.

```

(dbx) th info 17
thread state-k wchan state-u k-tid mode held scope function
$t17 run running 667723 k no sys JVM_Send

general:
  pthread addr = 0x3ea55c68 size = 0x244
  vp addr = 0x3e69e5e0 size = 0x2a8
  thread errno = 2
  start pc = 0x300408b0
  joinable = no
  pthread_t = 1011
scheduler:
  kernel =
  user = 1 (other)
event :
  event = 0x0
  cancel = enabled, deferred, not pending
stack storage:
  base = 0x3ea15000 size = 0x40000
  limit = 0x3ea55c68
  sp = 0x3ea55054

```

pthread_t 항목에서 Java Thread ID 를 얻는다. 여기서는 1011 이된다.

3. Java Thread Dump 에서 2 에서 얻어온 Java Thread ID 를 이용해서 해당 Java Thread 를 찾아서 Java Stack 을 보고 CPU 를 많이 사용하는 원인을 찾아낸다.

1) kill -3 [WebLogicP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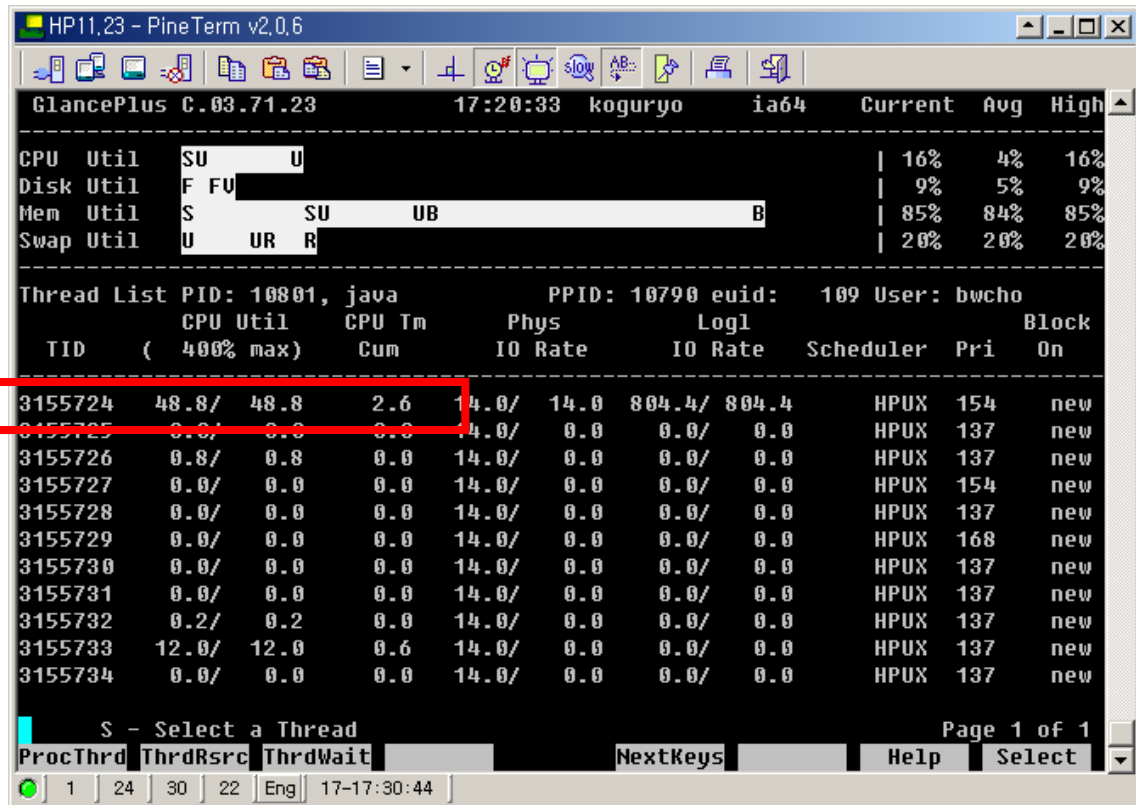
2) Thread dump 를 보면 native ID 라는 항목이 있는데, 2.에서 찾은 Java Thread ID 와 이 항목이 일치하는 Execute Thread 를 찾으면 된다.

```
"ExecuteThread: '11' for queue: 'default'" (TID:0x31cf86d8, sys_thread_t:0x3e5ea108, state:R,
native ID:0x1011) prio=5
  at java.net.SocketOutputStream.socketWrite(Native Method)
  at java.net.SocketOutputStream.write(SocketOutputStream.java(Compiled Code))
  at weblogic.servlet.internal.ChunkUtils.writeChunkTransfer(ChunkUtils.java(Compiled
Code))
  at weblogic.servlet.internal.ChunkUtils.writeChunks(ChunkUtils.java(Compiled Code))
  at weblogic.servlet.internal.ChunkOutput.flush(ChunkOutput.java(Compiled Code))
  at weblogic.servlet.internal.ChunkOutput.checkForFlush(ChunkOutput.java(Compiled
Code))
  at weblogic.servlet.internal.ChunkOutput.write(ChunkOutput.java(Compiled Code))
  at weblogic.servlet.internal.ChunkOutput.write(ChunkOutput.java(Compiled Code))
  at
weblogic.servlet.internal.ChunkOutputWrapper.write(ChunkOutputWrapper.java(Compiled
Code))
  at weblogic.servlet.internal.ChunkWriter.write(ChunkWriter.java(Compiled Code))
  at java.io.Writer.write(Writer.java(Compiled Code))
  at java.io.PrintWriter.write(PrintWriter.java(Compiled Code))
  at java.io.PrintWriter.write(PrintWriter.java(Compiled Code))
  at java.io.PrintWriter.print(PrintWriter.java(Compiled Code))
  at java.io.PrintWriter.println(PrintWriter.java(Compiled Code))
  at examples.servlets.HelloWorldServlet.service(HelloWorldServlet.java(Compiled Code))
  at javax.servlet.http.HttpServlet.service(HttpServlet.java:853)
  at
weblogic.servlet.internal.ServletStubImpl$ServletInvocationAction.run(ServletStubImpl.java:
1058)
  at weblogic.servlet.internal.ServletStubImpl.invokeServlet(ServletStubImpl.java:401)
  at weblogic.servlet.internal.ServletStubImpl.invokeServlet(ServletStubImpl.java:306)
  at
weblogic.servlet.internal.WebAppServletContext$ServletInvocationAction.run(WebAppServle
tContext.java:5445)
  at
weblogic.security.service.SecurityServiceManager.runAs(SecurityServiceManager.java(Comp
iled Code))
  at
weblogic.servlet.internal.WebAppServletContext.invokeServlet(WebAppServletContext.java:
3105)
  at weblogic.servlet.internal.ServletRequestImpl.execute(ServletRequestImpl.java:2588)
  at weblogic.kernel.ExecuteThread.execute(ExecuteThread.java(Compiled Code))
  at weblogic.kernel.ExecuteThread.run(ExecuteThread.java:189)
```

○ HP Unix 에서 CPU 사용률이 높은 Thread 검출해내기

1 먼저 JVM 이 Hotspot mode 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classic 모드가 아니어야 한다.)
옵션을 주지 않았으면 Hotspot 모드가 default 이다.

2. glance 를 실행해서 'G'를 누르고 WAS 의 PID 를 입력한다.
 각 Thread 의 CPU 사용률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는데.



여기서 CPU 사용률이 높은 Thread 의 TID 를 구한다.

3. kill -3 을 이용해서 Thread dump 를 추출해서, 2 에서 구한 TID 와 Thread Dump 상의 lwp_id 가 일치하는 Thread 를 찾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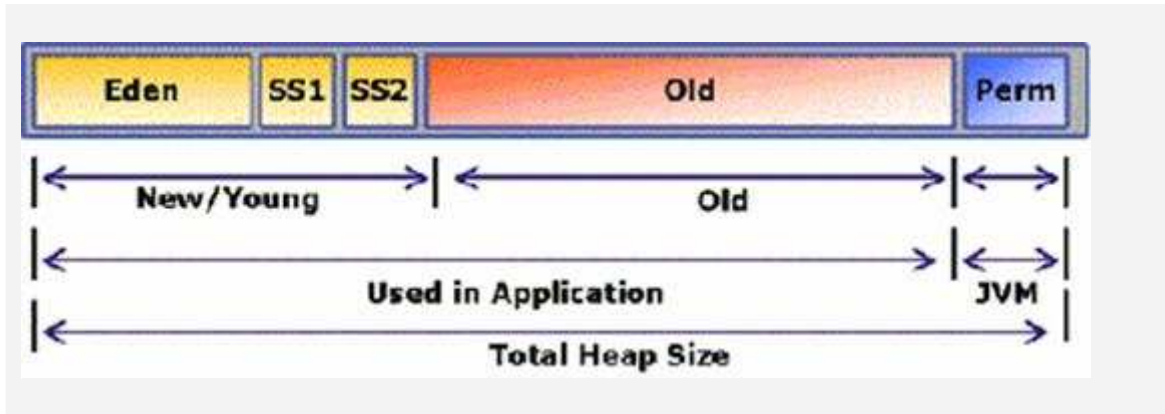
지금까지 Thread Dump 를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WAS 와 그 위에서 작동하는 Applllication 의 Slow down 이나 hangup 의 원인을 대부분 분석해낼 수 있으나, Thread Dump 는 어디까지나 분석을 위한 단순한 정보이다... Thread Dump 의 내용이 Slow down 이나 hang up 의 원인이 될수도 있으나, 반대로 다른 원인이 존재하여 그 결과로 Thread Dump 와 같은 Stack 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원인을 동시에 살펴보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3. Slow down in JVM

WAS 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것중의 하나가 JVM 이다.

JVM의 튜닝 여부에 따라서 WAS 상에서 작동하는 Ap의 성능을 크게는 20~30% 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slow down 과 hangup 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것은 JVM의 Full GC이다.

간단하게 JVM의 메모리 구조를 검토하고 넘어가보도록 하자.



<그림 4-1. JVM의 메모리 구조 >

JVM은 크게 New 영역과 Old 영역, 그리고 Perm 영역 3가지로 분류가 된다. Perm 영역은 Class 나 Method 들이 로딩되는 영역이고 성능상의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객체의 생성과 저장에 관련되는 New 와 Old 영역인데, 모든 객체는 생성이 되자마자 New 영역에 저장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객체들은 Old 영역으로 이동이 된다.

New 영역을 Clear 하는 과정을 Minor GC 라하고, Old 영역을 Clear 하는 과정은 Major GC 또는 Full GC 라 하는데, 성능상의 문제는 이 Full 영역에서 발생한다.

Minor GC의 경우는 1 초 이내에 아주 고속으로 이뤄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 Full GC의 경우에는 시간이 매우 오래걸린다. 또한 Full GC가 발생할 동안은 Application이 순간적으로 멈춰 버리기 때문에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Hangup으로 보이거나 또는 Full GC가 끝나면서 갑자기 request가 몰려버리는 현상 때문에 종종 System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Full GC는 통상 1회에 3~5 초 정도가 적절하고, 보통 하루에 JVM Instance 당 5회 이내가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절대 값은 없다.)

Full GC 가 자주 일어나는것이 문제가 될경우에는 JVM 의 Heap 영역을 늘려주면 천천히 일어나지만 반대로 Full GC 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한다.

개당 Full GC 시간이 오래걸릴 경우에는 JVM 의 Heap 영역을 줄여주면 빨리 Full GC 가 끝나지만 반대로 Full GC 가 자주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Tuning 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Full GC 로 인한 문제는 JVM 자체나 WAS 의 문제이기 보다는 그 위에서 구성된 Application 이 잘못 구성되어 메모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오래 점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용량 DBMS Query 의 결과를 WAS 상의 메모리에 보관하거나 , 또는 Session 에 대량의 데이터를 넣는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가 있다.

좀더 자세한 튜닝 방법에

대해서는 http://www.j2eestudy.co.kr/lecture/lecture_read.jsp?db=lecture0401_1&table=j2ee&id=1 를 참고하기 바란다.

4. Slow down analysis in DBMS

Application 이 느려지는 원인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은 DBMS 의 성능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흔히들 DBMS Tuning 을 받았더니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그만큼 DB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DBMS 자체 Tuning 에 대한 것은 이 문서와는 논외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하고, DBMS 에 전송되는 각각의 SQL 문장의 실행 시간을 Trace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SQL 문장을 실행시간은 아래 방법들을 이용해서 Trace 할 수 있다.

※ <http://eclipse.new21.org/phpBB2/viewtopic.php?printertopic=1&t=380&start=0&postdays=0&postorder=asc&vote=viewresult>

※ http://www.j2eestudy.co.kr/qna/bbs_read.jsp?table=j2ee&db=qna0104&id=5&searchBy=subject&searchKey=sql&block=0&page=0

5. Slow down analysis in Webserver & network

WAS 와 DBMS 앞단에는 WebServer 와 Network 이 있기 때문에 이 Layer 에서 문제가 되면 속도저하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의 slow down 이나 hangup 은 이 부분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성능상에 종종 영향을 주는 Factor 가 있는데,

○ WebServer 와 Client 간의 KeepAlive

특히 WebServer 의 Keep Alive 설정이 그것이다.

WebBrowser 와 WebServer 간에는 KeepAlive 설정을 하는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WebBrowser 에서 하나의 HTML 페이지를 로딩하기 위해서는 Image 와 CSS 등의 여러 파일등을 로딩하는데, KeepAlive 설정이 없으면 각각의 파일을 로딩하는것에 각각의 Connection 을 open,request,download,close 를 한다. 잘들알고 있겠지만 Socket 을 open 하고 close 하는데에는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한번 연결해놓은 Connection 을 계속 이용해서 HTTP data 를 주고 받는 설정이 KeepAlive 이다.

이 KeepAlive 설정은 웹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서 많은 성능 변화를 주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KeepAlive 설정을 유지하기 바란다. 설정 방법은 각 WebServer 의 메뉴얼을 참고하기 바란다.

※ Apache2.0 의 Keep Alive 설정은

<http://httpd.apache.org/docs-2.0/mod/core.html#keepalive> 를 참고하기 바란다.

Default 가 KeepAlive 가 On 으로 되어 있다.

○ WebServer 와 WAS 간의 KeepAlive

WebServer 와 WAS 간에는 WebServer 에서 받은 request 를 forward 하기 위해서 WebServer Side 에 WAS 와 통신을 하기 위한 plug-in 이라는 모듈을 설치하게 된다. 이 역시 WebServer 와 Client 간의 통신과의 같은 원리로 KeepAlive 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역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정하기를 권장한다.

※ WebLogic 에서 Webserver 와의 KeepAlive 설정은

http://e-docs.bea.com/wls/docs81/plugins/plugin_params.html#1143055 을 참고하기 바란다. Default 는 KeepAlive 가 True 로 설정되어 있다

○ OS 에서 Kernel Parameter 설정

OS 의 TCP/IP Parameter 와, Thread 와 Process 등의 Kernel Parameter 설정이 운영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 Parameter 들은 Tuning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WAS 또는 OS Vendor 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통해서 Tuning 하기 바란다.

※ WebLogic 의 OS 별 설정 정보는

http://e-docs.bea.com/platform/suppconfigs/configs81/81_over/overview.html
를 참고하기 바란다.

6. Common mistake in developing J2EE Application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J2EE Application 의 병목구간을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병목은 Application 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병목을 유발하는 Application 에 자주 발생하는 개발상의 실수를 정리해보도록 하자.

1) Java Programming

- synchronized block

위에서도 설명 했듯이 synchronized 메소드는 lock contention 과 deadlock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해야하지만, 이점을 고려해서 Coding 해야한다.

- String 연산

이미 많은 개발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String 연산 특히 String 연산중 "+" 연산은 CPU 를 매우 많이 소모하게 되고 종종 slow down 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String 보다는 가급적 StringBuffer 를 사용하기 바란다.

- Socket & file handling

Socket 이나 File Handling 은 FD (File Descriptor)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유한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사용후에 반드시 close 명령을 이용해서 반환해야한다. 종종 close 를 하지 않아서, FD 가 모자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2) Servlet/JSP Programming

- JSP Buffer Size

Jsp 에서는 JSP 의 출력 내용을 저장하는 **buffer**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다.

```
<% page buffer="12kb" %>
```

이 **buffer size** 는 출력 내용을 **buffering** 했다가 출력하는데, 만약에 쓰고자하는 내용이 **Buffer size** 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번에 걸쳐서 **socket write** 가 일어나기 때문에 **performance**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buffer size** 를 화면에 뿌리는 내용의 크기를 예측해서 지정해주는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너무 큰 버퍼를 지정해버리면 메모리가 불필요하게 낭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하기 바란다.

참고로 **jsp page buffer size** 는 지정해주지 않는경우 **default** 로 **8K** 로 지정된다.

- member variable

Servlet/JSP 는 기본적으로 **Multi Thread** 로 동작하기 때문에, **Servlet** 과 **JSP** 내에서 선언된 멤버 변수들은 각 **Thread** 간에 공유가 된다.

그래서 이 변수들을 **read/write** 할 경우에는 **synchronized method** 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 **synchronized** 는 속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member** 변수로는 **read** 만 하는 객체를 사용하는게 좋다.

특히 **Servlet** 이나 **JSP** 에서 **Data Base Connection** 을 멤버 변수로 선언하여 **Thread** 간 공유하는 예가 있는데, 이는 별로 좋지 않은 프로그래밍 방법이고, 이런 형태의 패턴은 **Servlet** 이 단 하나만 실행되거나 하는것과 같은 제약된 조건 아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 Out of Memory in file upload

JSP 에서 **File upload control**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control** 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upload** 되는 파일 내용을 몽땅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업로드가 끝나면 한꺼번에 **file** 에 **writing**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사이즈의 파일을 업로드할때, 파일 사이즈만큼의 메모리 용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Out Of Memory** 에러를 발생 시킬 수 있다.

File upload 는 **buffer** 를 만들어서 읽고, 파일에 쓰는 작업을 병행하도록 해야한다.

3) JDBC Programming

- Connection Leak

JDBC Programming 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Connection Leak** 이다. **Database Connection** 을 사용한후에 **close**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Exception** 이 발생하였을때도 반드시 **Connection** 을 **close** 하도록 해줘야한다.


```

conn = getConnection();
try{
    do something
}catch(Exception e){ dosomething(); }
}finally{
    if(stmt!=null) stmt.close();
    if(conn!=null) conn.close();
}

```

< 그림 . Connection close 의 올바른 예 >

- Out of memory in Big size query result
SQL 문장을 Query 하고 나오는 resultset 을 사용할때, 모든 resultset 의 결과를 Vector 나 hashtable 등을 이용해서 메모리에 저장해놓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SQL Query 의 결과가 10 만건이 넘는것과 같은 대용량일때 이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 상에 저장할려면 Out Of Memory 가 나온다.
Query 의 결과값을 처리할때는 ResultSet 을 직접 리턴받아서 사용하는것이 메모리 활용면에서 좀더 바람직하다.

- Close stmt & resultset
JDBC 에서 ResultSet 이나 Statement 객체는 기본적으로 Connection 을 close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닫히게 된다. 그러나 WAS 나 Servlet Container 의 경우에는 성능향상을 위해서 Connection Pooling 기법을 이용해서 Connection 을 관리하기 때문에 Connection Pooling 에서 Connection 을 close 하는것은 실제로 close 하는것이 아니라 Pool 에 반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Connection 에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는 Statement 나 ResultSet 이 닫히지 않는다.

Connection Pooling 에서 Statement 와 ResultSet 을 사용후에 닫아주지 않으면 Oracle 에서 too many open cursor 와 같은 에러가 나오게된다. (Statement 는 DB 의 Cursor 와 mapping 이 된다.)

4) EJB Programming

- When we use EJB?
EJB 는 분명 강력하고 유용한 개발 기술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EJB 의 장점과 용도를 모르고 사용하면 오히려 안쓰는것만 못한 경우가 많다. 각 EJB 모델 (Session Bean, Entity Bean)이 어떤때 유용한지를 알고 사용하고, 정확한 Transaction Model 등을 결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 Reduce JNDI look up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EJB 의 Home Interface 를 lookup 해오는 과정은 객체의 **Serialization/DeSerialization** 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JB Home 을 한번 look up 한후에는 **Hashtable** 등에 저장해서 반복해서 **Remote Call(Serialization / DeSerialization)**하는 것을 줄이는게 좋다.

- **Do not use hot deploy in production mode**

WAS Vendor 마다 WAS 운영중에 EJB 를 Deploy 할 수 있는 HotDeploy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J2ee spec 에 있는 구현이 아니라 각 vendor 마다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공하는 기능이다. 운영중에 EJB 를 내렸다 올리는것은 위험하다. (Transaction 이 수행중이기 때문에) Hot Deploy 기능은 개발중에만 사용하도록 하자.

5) JVM Memory tuning

- **Basic Tuning**

Application 을 개발해놓고, 운영환경으로 staging 할때 별도의 JVM 튜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튜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메모리 사이즈와 HotSpot VM 모델 (server/client)는 설정해줘야지 어느정도의 Application 의 성능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최소한 메모리 사이즈와 VM 모델정도는 설정을 해주고 운영을 하도록 하자.

6. 결론

J2EE Application 의 병목구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발견하고 툴과 경험을 이용해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해야한다.

대부분의 WAS 또는 User Application 의 slow down 이나 hang up 은 Thread dump 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 대부분 발견 및 해결을 할 수 있다.

그외에 부분 JVM 이나 WebServer,Network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험과 Log 분석등을 알아내야하고 DB 에 의한 slow down 이나 hang up 현상은 DB 자체의 분석이 필요하다.